

1

2025

#### 연구와 전시

사라진 사찰의 장엄한 파편  
좋은 향으로 가득했던 옛사람들의 일상으로  
특별함은 평범함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 기억의 서랍

새로운 시대의 창: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20년을 돌아보다

#### 사람과 이야기

추석 명절 페스티벌을 여는 미국 박물관 보셨나요?  
시간을 품은 너를 처음 마주한 순간

THE MUSEUM NEWS JANUARY 2025 VOL.641

박물관신문





## 04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 새해 인사



## 06

전시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



## 12

국립익산박물관 특별전  
〈미륵사지 출토 치미 -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



## 22

이진무 제8대 국립중앙박물관장 인터뷰

## 연구와 전시

04 새해 인사

역사를 품고 미래를 잇다

06 전시 돋보기

깊이 이해하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전시를 그리다

12 전시

사라진 사찰의 장엄한 파편

14 전시

좋은 향으로 가득했던 옛사람들의 일상으로

16 전시

특별함은 평범함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18 교육

국립박물관과 함께한  
2024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 아카데미’ 워크숍

## 사람과 이야기

20 잠시 멈춤

상서로운 2025년의 시작을 기원하며

22 기억의 서랍

새로운 시대의 창: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20년을 돌아보다

26 K-뮤지엄

추석 명절 페스티벌을 여는 미국 박물관 보셨나요?

28 출판

시간을 품은 너를 처음 마주한 순간

30 주요 소식

32 국립박물관 주요 전시 일정

34 굿즈

고려 사람들의 상상력을 가득!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비색 담은 뭇즈

35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 역사를 품고 ————— 미래를 잇다

지난해 전국의 국립박물관을 방문한 외국인 관람객이 35만 명(중앙: 약 20만 명)을 훌쩍 뛰어 넘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K-컬처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인 인기 속에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국립박물관의 국제교류는 유물 및 전시 교환을 넘어, 인적 교류와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으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 시설, 운영 등 박물관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세계의 박물관과 호흡을 맞추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실은 전시와 예산 지원을 넘어 전문 큐레이터 채용 지원이라는 인적 자원 협력으로 전시의 수준과 깊이를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함께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국립박물관은 국내외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여 서로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당당평평(蕩蕩平平)-글과 그림의 힘〉(2023.12.8.~2024.3.10.),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철기〉(2024.7.10.~9.22.),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2024.11.26.~2025.3.3.),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구스타프 클림트부터 에곤 실레까지〉(2024.11.30.~2025.3.3.), 그리고 국립박물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선보인 〈국보순회전: 모두의 걸으로〉까지 나눌수록 커지는 문화유산의 힘을 증명한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도 조명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남인도의 불교미술을 소개한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 이야기〉(2023.12.22.~2024.4.14.), 북미 원주민의 문화와 예술을 다룬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2024.6.18.~10.9.) 등의 특별전이 서울에 이어 지역순회전으로 관람객을 만나 문화로 세계와 지역이 공명하는 특별한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융합과 혁신의 길도 모색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상설전시실 2층에 마련된 '외규장각 의궤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전시실은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 친구들(YFM)의 전폭적인 지지와 힘입어 10여 년간 축적된 연구 성과에 건축·디자인,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융합하여 완성한 공간입니다. 고궤 박병선 박사를 비롯하여 의궤를 되찾기 위해 힘쓴 많은 분의 노력을 기리고, 의궤에 담긴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하는 곳입니다. 작지만 알찬 이 전시실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국립박물관 개관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20세기 초 역사의 긴 어둠의 터널을 헤쳐온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양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 국립박물관은 기후 변화, 인구 감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같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립박물관은 역사와 문화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역사와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우리를 다시 미래로 이어줄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조선 전기 미술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조선 전기 미술(가제)〉(2025.6.10.~8.31.)과 전쟁 아닌 평화를 염원했던 이순신을 통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돌아보는 〈이순신(가제)〉(2025.11.28.~2026.3.3.)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조들이 꿈꿨던 이상과 그것을 실현하고자 펼쳤던 지혜와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향한 광복의 진정한 참뜻을 함께 생각해 보길 희망합니다.

2025년 을사년은 뱀의 해입니다. 뱀은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 풍요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혁신'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도 끊임없이 성장하며, 탄탄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조사·연구와 전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관람객과 소통하고, 올해 10월 개관하는 '문화유산 과학센터'에서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연결망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박물관의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뮤지엄 아카데미'와 같은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박물관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이하는 어린이박물관에서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필요한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박물관 교육을 고민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에 충실하면서, 우리 역사와 문화로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고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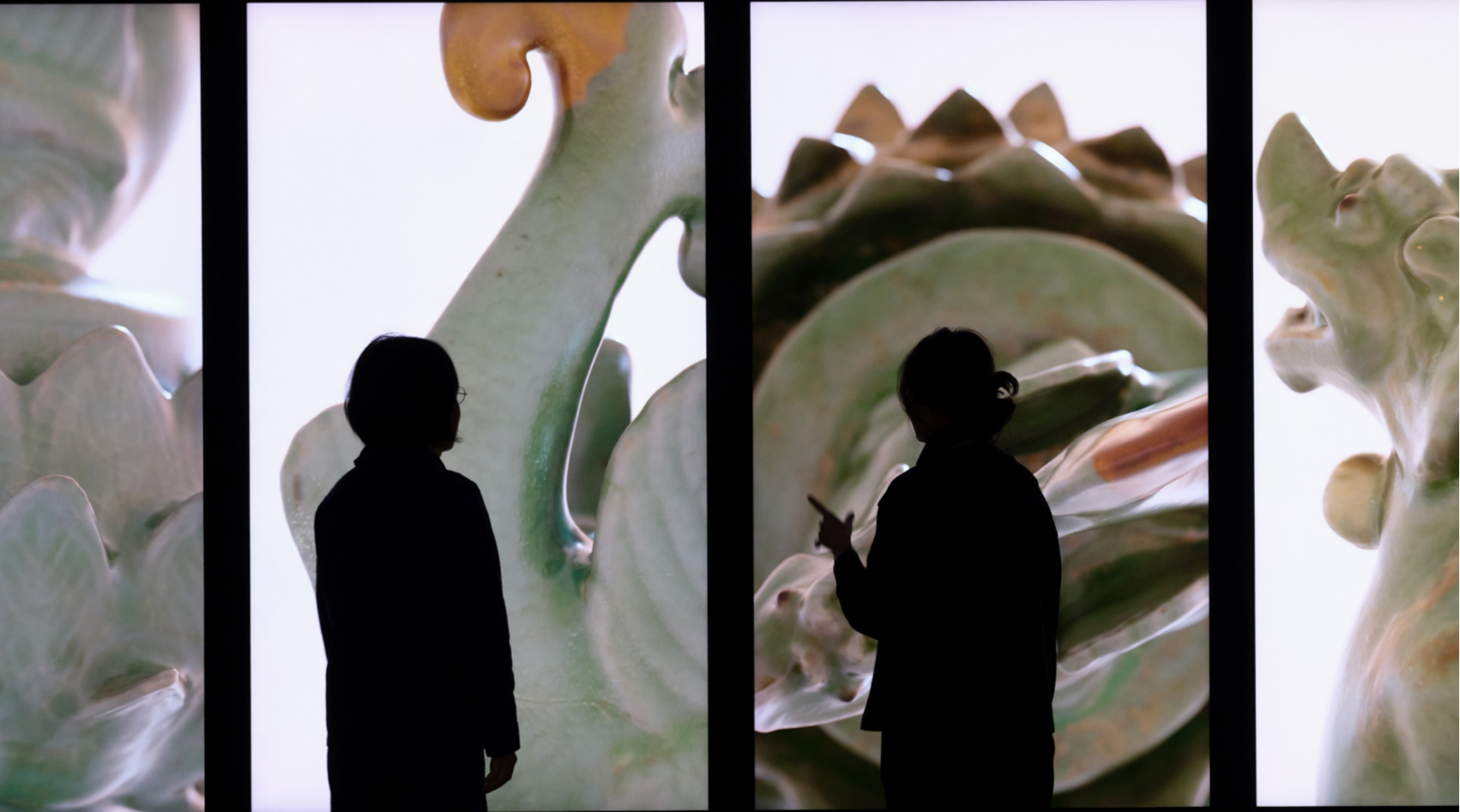
2025년 새해 아침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 깊이 이해하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전시를 그리다

전시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는 학예연구사와 디자이너의 경험과 역량이 집약되어 완성된다. 유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장대한 서사를 엮고,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주는 공간 연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은 결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주인공의 서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관람객의 동선과 연령대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렇듯 하나의 전시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깊은 고민이 커져이 쌓여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구스타프 클림트부터 에곤 실레까지〉, 그리고 외규장각 의궤실은 이러한 숨은 노력이 더해져 관람객에게 깊은 감동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경험을 선사한다. 각 전시를 기획하고 만든 학예연구사와 전시 디자이너에게 준비 과정과 관람 포인트를 들어보았다.

## 고려 사람들이 추구한 아름다움, 상형청자를 말하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2024.11.26.~2025.3.3.

고려 상형청자는 동물, 식물, 인물 등 형상을 본떠 만든 것으로 아름다운 비색 유약과 빼어난 조형성으로 고려 시대 공예의 높은 기술적 성취와 독자적 미감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 문화의 정수로 꼽힌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는 고려 상형청자의 대표작과 발굴품 등 중요 자료를 처음 한자리에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제1부 ‘그릇에 형상을 더하여’, 제2부 ‘제작에서 향유까지’, 제3부 ‘생명력 넘치는 형상들’, 제4부 ‘신앙으로 확장된 세상’ 등 총 4부로 구성했으며, 국보 11건, 보물 9건, 등록 문화유산 1건을 포함한 상형청자의 대표 작품을 비롯해 국내 25개 기관과 개인 소장자, 중국·미국·일본 3개국 4개 기관의 소장품 총 274건이 출품되었다.

## 서유리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상형청자는 다양한 형상이 유기적이고 정교하게 표현되어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관람객이 이러한 상형청자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상형용기의 전통에서 상형청자의 제작과 향유, 소재와 쓰임, 종교적 맥락에 따른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문화사적 맥락을 짚어보고 상형청자에 담긴 고려 사람들의 세상과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며 상형청자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우선 염두에 두었습니다. 상형청자의 개념과 종류를 인식시키는 것에서부터 전시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그간의 상형청자 조사 성과를 반영하고 국내 타 기관과 해외의 주요 소장품을 소개해 다채로운 상형청자의 양상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신 발굴자료를 종합적으로 소개해 감상뿐만 아니라 역사적 맥락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상형청자는 하나하나 모두 쓰임이 있고 용기라는 큰 틀에서 소재가 덧입혀져 있으며 이러한 소재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용처럼 상상의 동물은 권위를 상징하며 오리, 원숭이, 복숭아, 죽순 등은 곁에 두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봤던 것들입니다. 상형청자가 기능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최고의 예술품이라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영상이 있는데 ‘상형청자와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영상을 관람해보길 추천합니다. 기획자에게 직접 듣는 주제별 설명과 함께 도예가, 디자이너, 미술작가 분들이 상형청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느낌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전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 박혜운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팀 디자인 전문경력관

상형청자에 담긴 세상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이기도 하면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이기도 합니다. 고려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연과 이상향이 상형청자라는 캔버스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 및 식물과 같은 자연, 심지어 종교적인 상징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고려 사람들의 개방적인 세계관과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그동안 도자가 전시되었던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상형청자의 매력이 표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열장 하나하나를 빈 도화지라 생각하고 각각의 작품이 모여 마치 하나의 정물화가 된 것처럼 전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배치해 보았습니다.

반면, 어룡 주자나 표주박 주자와 같이 판타지적인 개성이 뚜렷한 작품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작품 고유의 느낌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상형청자의 형태와 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요소는 빛인 만큼 하나의 비색에 내재한 다층적인 그라데이션을 공간에 펼쳐놓는 것을 기본 콘셉트로, 상형청자를 다양한 느낌으로 감상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일출과 일몰 시간대의 바다가 다르듯이 고려청자의 비색에도 다양한 색이 담겨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시각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러 작가와도 협업했습니다. 1,000년 전 고려 사람들이 추구한 아름다움을 흥미롭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 사람들이 사랑한 세상, 그 세상이 담긴 상형청자의 다채로움을 발견해보길 바랍니다.



1900년대 비엔나,  
6인의 ‘꿈꾸는 예술가’를  
만나러 가는 여정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구스타프 클림트부터 에곤 실레까지〉  
2024.11.30.~2025.3.3.

국립중앙박물관은 오스트리아 레오폴트  
미술관과 협력하여 특별전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구스타프 클림트부터  
에곤 실레까지〉를 통해 19세기 말 비엔나에서  
변화를 꿈꾼 예술가의 활동과 모더니즘으로의  
전환 과정을 보여준다. 비엔나 분리파의 창립에  
앞장서고 비엔나 예술계를 모더니즘으로  
이끈 혁신가 구스타프 클림트 세대가 구축한  
발판 위에서 에곤 실레로 대표되는 표현주의  
예술가의 작품 세계가 이어진다. 약 20년의  
짧은 세월 동안 예술계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꿈꾸는 예술가의 작품을 만나보러  
1900년대 비엔나 속으로 들어가 본다.

양승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사

이번 전시에서는 6명의 대표적인 ‘꿈꾸는 예술가들’을 소개합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콜로만 모저, 요제프 호프만, 오스카 코코슈카, 리하르트 게르스틀, 그리고 에곤 실레까지. 보수적인 아카데미 중심이었던 비엔나 예술계를 모더니즘의 상징으로 만들어낸 ‘꿈꾸는 예술가들’의 도전, 그 의미가 관객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어쩌면 제목 때문에 회화를 많이 볼 수 있는 전시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 비엔나에 일어난 예술 운동은 미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미술, 음악, 건축, 디자인 등 예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난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비엔나 분리파는 과거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예술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순수 미술로부터 디자인, 공예 등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지평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비엔나 디자인 공방에는 ‘일상의 모든 물건은 예술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예술이 홀로 고귀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것처럼 일상에 가까운 예술은 유리잔에도, 우표에도, 의자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술이 새롭게 변화하기를 바랐던 예술가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전시의 묘미를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6명의 예술가를 직접 만난다는 마음으로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전시를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예나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팀 디자인 전문경력관

전시 공간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관객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작품의 관람에 그치지 않고 빈 분리파 건물, 디자인 공방 등 당시를 재현해 1900년대 비엔나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곳은 에곤 실레의 드로잉 작품이 설치된 원형 공간입니다. 파노라마 형태로 구성해 방해 요소 없이 작품에 집중할 수 있고, 작품 속 선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해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전시된 작품은 1900년대 초 비엔나의 예술을 대표하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분리파 전시관인 제체시온(Secession), 디자인 공방과 같이 실존하는 장소를 재현해 작품과 공간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 공방의 입구 쪽에는 공방의 진열장을 배치하고, 안쪽으로는 당시 공방에서 출시된 엽서와 벽지 패턴을 재구성해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했습니다.

새롭게 구현한 공간에 당시의 공예품을 전시해 디자인과 공예가 결합한 공간적 특성을 살렸습니다. 공방의 환경과 작품의 조화를 함께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관람객은 비엔나의 디자인과 공예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체감하고 그 시대의 예술적 세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전시의 동선과 공간의 구조가 작품과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경험해보길 바랍니다.





왕의 서고로 들어가는 시간,  
외규장각 의궤로  
조선과 오늘날을 잇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외규장각 의궤실  
2024.11.15.~

외규장각 의궤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에 의해 무단 반출되었던 조선 왕실의 기록물이다. 100여 년이 지난 뒤 프랑스에서 그 존재를 확인했으며 외규장각을 떠난 지 145년 만인 2011년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외규장각 의궤 속 다양한 내용을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궤 전용 전시실 ‘왕의 서고, 어진 세상을 꿈꾸다’를 조성했으며 그간 축적된 전시와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공간이 탄생되었다. 외규장각 의궤실은 왕의 서고를 콘셉트로 어람용 의궤의 의미를 강조한다. 의궤라는 책의 겉과 속을 밀도 있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 당시의 숨결을 느끼고 그 시대의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선사한다.



김진실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사

인천 강화의 외규장각이 왕실의 중요 기록물을 보관했던 장소인 만큼 이번 외규장각 의궤실의 콘셉트는 ‘왕의 서고’로 기획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외규장각 의궤가 가진 ‘약탈과 귀환’이라는 이야기도 강조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기록을 이야기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쉽게 읽히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전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전시 대상품이 책이고 모두 한문으로 쓰여 쉽게 읽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형, 다채로운 그림, 이 밖에 기록된 내용이나 구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시 패널과 설명 카드로 풀 수 없던 의궤 속 구체적인 내용을 디지털 책에 담았고 관람객이 책을 넘기듯 찬찬히 읽어보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외규장각 의궤는 대부분 국왕이 보던 단 하나의 책인 어람용 의궤이며 그 중에는 지금은 1부밖에 전하지 않는 유일본 의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형으로나 내용으로나 매우 의미 있는 기록유산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 점을 눈여겨 본다면 좀 더 재미있는 관람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대개 조선 왕조 의궤는 『조선왕조실록』에 버금가는 중요 기록유산으로 손꼽히지만 그 속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 왕조 의궤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박혜운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팀 디자인 전문경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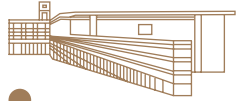
단 한 점의 유물이라도 관람객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이에 의궤실 개편 방향 역시 유물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관람객이 유물과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전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의궤실의 도입부는 왕의 서고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의궤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암시하는 낡고 헤진 원표지를 전시하여 관람객이 의궤의 상징성과 그 속에 담긴 역사를 예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2부에서는 외규장각 어람용 의궤를 직접 감상하고 제3부에서는 왕실의 혼례와 흥례를 다룬 의궤를 통해 조선 왕조의 의례 문화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4부는 디지털 서고로 구성되어 관람객이 디지털 책과 도설 아카이브를 통해 의궤의 내용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의궤실은 의궤라는 책의 겉과 속을 모두 밀도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시품으로서의 의궤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이야기를 통해 조선시대와 오늘날을 잇는 다리를 놓고자 했습니다. 많은 관람객이 의궤실에서 조선의 숨결을 느끼고 그 시대의 이야기를 마음 속에 새길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국립익산박물관

# 사라진 사찰의 장엄한 파편

국립익산박물관 특별전 <미륵사지 출토 치미 -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  
2024.10.22.~2025.3.3.



치미  
통일신라  
높이 143cm

국립익산박물관은 개관 5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전 <미륵사지 출토 치미 -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립익산박물관 중장기 학술 조사 연구 '미륵사지 재발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미륵사지 출토 치미<sup>龜尾</sup>의 원형을 추적하기 위해 고고학적, 미술사적 검토와 과학적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치미 제작 기법 및 보존·수복 성과를 소개한다.

예부터 치미는 건축물의 지붕 용마루 양 끝을 장식하는 기와로 치문<sup>鸕吻</sup>, 취두<sup>鷲頭</sup>, 반우<sup>反羽</sup>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한반도에서는 4세기 중후반에 축조된 고구려 안악1호 무덤 벽화 등에서 초보적인 형태의 치미가 확인되며 7세기에 조성된 미륵사지에도 다양한 형태와 문양을 담은 치미 편이 900여 점 이상 출토되어 학계의 관심을 받았다. 비록 완전한 모양이 아닌 편으로 전하지만 백제 최대 대찰 미륵사의 옛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타임캡슐과도 같은 치미의 제작, 폐기, 복원의 과정을 살펴본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과학기술과 보존·수복을 통해 본 치미'에서는 과학조사를 통해 치미의 내부 구조 및 제작 방법 등을 관찰한다. 또한 이물질 제거부터 색 맞춤에 이르기까지 치미의 보존 처리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개한다.



치미  
통일신라  
높이 25cm

치미  
백제~통일신라  
높이 37cm



치미  
백제  
높이 99cm



제2부 '형태를 빚고 문양을 담은 치미'에서는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치미의 능골<sup>脊稜</sup>, 동부<sup>胴部</sup>, 날개<sup>鱗部</sup>, 꼬리<sup>頂部</sup> 등의 형태와 용문<sup>龍文</sup>, 보주문<sup>寶珠文</sup>, 연화문<sup>蓮花文</sup>, 당초문<sup>唐草文</sup> 등의 문양이 장식된 치미 편을 집중적으로 전시한다. 폭넓은 문헌자료와 다양한 일러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치미의 형태와 문양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제3부 '용마루 위 장식기와, 치미'에서는 이번에 복원한 동원 승방지와 연못지 출토 치미를 최초로 공개한다. 특히 원형으로 복원된 동원 승방지 출토 치미는 높이가 약 143cm에 이르는 대형 치미로, 현재 전하는 통일신라 치미 중 가장 크다. 이 외에도 전시실 입구에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치미 촉각체험물(4종)을 비치하여 운영한다.

한편 이번 전시와 연계한 학술대회 '익산 미륵사지 출토 치미 제작과 복원'이 1월 10일 국립익산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익산 미륵사지 치미에 대한 고찰 -고고학적 특징을 중심으로-'를 비롯하여 최신 연구 성과(5주제)를 공유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익산박물관 누리집(iksan.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강건우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대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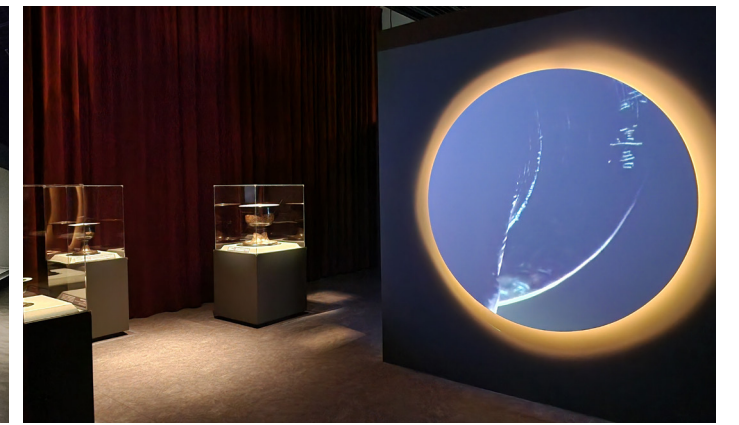
# 좋은 향으로 가득했던 옛사람들의 일상으로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향의 문화사: 염원에서 취향으로>  
2024.12.7.~2025.3.3.

국립대구박물관은 1994년 12월 7일 개관한 이래 30주년을 맞게 되었다. 이번 전시는 새롭게 브랜딩 된 '라이프스타일(Lifestyle)' 즉,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생활양식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전시로 삼국부터 조선까지 아우르는 '향의 문화사적 이해'에 초점을 맞췄다.



제2부 '격식에서 취향으로'



제3부 '향으로 이어진 마음'

특별전 <향의 문화사: 염원에서 취향으로>는 옛사람들의 일상을 가득 채웠지만 지금은 잊힌 향<sup>香</sup> 문화를 돌아보는 전시이다. 이를 위해서 관람객이 궁금할 수 있는 향을 사르는 방법과 재료들을 각 부의 콘셉트에 맞게 배치했으며 영남지역의 주요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중앙홀을 가득 채운 현대인의 향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로의 여정을 떠나게 된다. 도입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향을 영상으로 만나며 전시를 통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묶인 향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보배 중의 보배인 <백제금동대향로>와 마주하게 된다.

제1부 '향의 기원을 찾아서'는 과거로 회귀하는 첫 공간이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향 문화의 기원을 살펴본 후 <향공양 돌기둥>에서 통일신라시대 향 문화를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나아가 세계 3대 향으로 불리는 '침향', '사향', '용연향'을 비롯해 석탑과 불상에서 발견되었던 향의 실물을 소개하고 향을 만드는 도구와 즐기는 도구를 만난다.

제2부 '격식에서 취향으로'에서는 종교로부터 일상과 취향, 복식 문화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향을 소개한다. 진귀한 재료를 사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종교적인 신성성을 갖는다. 따라서 향은 '부처님의 사자'이자 '혼백을 불러오는 매개체'로 인식되었으며 고대부터 종교적으로 활용되었다. 전시에서는 대표적인 경전과 의식집을 비롯해 <해인사 감로도>, 법천사지에서 출토되었던 <공양구> 등 대표적인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일상에서는 조선 왕실에서 애용했던 '동국부용향'에 주목하며 『동의보감』에 기록된 제조법을 재현한다. 그리고 일상의 여가를 즐길 때, 즐거운 날과 슬픈 날 등 특별한 순간에 사용되었던 각종 향로를 통해 옛사람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식 문화의 일면으로 우리나라에서 애용했던 향 노리개들을 선보인다.

제3부 '향으로 이어진 마음'에서는 향과 관련된 지역 및 장소에 집중한다. '바다를 건너 향'은 「매신라물해」부터 『조선왕조실록』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아우르며 진귀한 향 재료를 교역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진귀한 향 재료에 대한 열망을 신안선 출수유물을 통해서 보여준다. 아울러 우리나라 고유의 향 문화의 일면으로 향도<sup>香徒</sup>들이 묻었던 <매향목>을 통해서 사람들의 염원을 살펴볼 수 있다. '땅에서 찾아낸 보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던 진귀한 향을 대체하려는 사람들의 노력과 전쟁 등 위급한 상황 속에서 숨겨진 공양구를 살펴본다. 마지막 '오래도록 간직한 향완'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사찰에서 간직해왔던, 우리 곁에 남아있는 향완을 만나는 자리로 각각의 특색을 담고 있다.

제4부 '보배 중의 보배, 백제금동대향로'는 온전히 국보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는 공간이다. 관람객은 1부에서 3부에 이르기까지 향 문화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선에서 <백제금동대향로>를 마주하며 작품이 출토된 부여 능산리사지와 향로의 모티프가 되는 작품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시의 마지막에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즐기는 향 문화가 옛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향 문화가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공존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전시를 마치게 된다. 이번 특별전은 시각적인 감동을 넘어 후각적인 감동까지 받을 수 있는 체험이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유난히 추울 것으로 생각되는 올겨울, <향의 문화사: 염원에서 취향으로>가 방문하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공간이자 향기로 가득한 휴식처로 기억되었으면 한다.

글. 한길중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경주박물관

# 특별함은 평범함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2024년 열두 큐레이터의 전시 프로젝트 '소소하고 소중한'>  
2024.12.10.~2025.3.9.

## 도대체 열두 명이 뭘 하겠다는 거야?

“열두 큐레이터가 뭘을 한단데 도대체 뭘 한단거야?”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들었던 이야기이다. 사실 처음에는 나 역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번 전시는 본래 수장고에 있는 문화유산을 소개하자는 기획에서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 명이 모든 전시품을 선정하기보다 열두 큐레이터가 하나씩의 문화유산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관심사와 전공을 가진 열두 명이었기에 자연히 선정된 문화유산은 특정 시대, 재질, 주제로 엮을 수 없었다. 모든 전시품을 하나로 관통할 만한 키워드나 메시지도 없어 보였다. 솔직히 처음에는 막막했다.

## 물건만 보여주는 전시는 가라! 이제는 사람이다!

고심 끝에 이번 전시는 문화유산이라는 물건만이 아니라, 큐레이터라는 사람을 함께 보여주려고 하였다. 서로 다른 열두 명이 펼쳐내는 서로 다른 열두 가지 이야기! 전시실의 화려함 뒤에 가려져 있던 수장고 속 문화유산을 발굴해 낸 열두 큐레이터 이야기로 말이다. 34년 차, 곧 퇴직을 앞둔 관장부터 입관한 지 얼마 안 된 3년 차 막내 큐레이터까지, 나이와 직책을 떠나 한 사람의 큐레이터로 전시품과 마주하였다. 수많은 문화유산 중 하나에 시선이 머물고, 이를 연구하고 고민해 전시로 선보이는 일련의 과정을 '선정 이유, 작품해설, 관람 포인트'로 구성한 글에 담았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유산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지, 또 관람객도 전시품에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부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였다.

## 자세히, 처음처럼, 다르게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 '자세히 보니, 놀랍다'는 기존에 전시되었거나, 알려졌던 문화유산이지만 형태가 작고, 온전하지 않아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전시품을 소개한다. 손톱만 한 금관

총의 중층 유리구슬, 덩그러니 혼자 남은 월지 금동불의 오른손, 무언가 붙었다가 흔적만 남은 토우 달린 토기의 이야기이다. 2부는 '처음 보니, 설레다'로 최근에 발굴되어,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문화유산의 이야기로 꾸몄다. 동물을 닮은 황오동 출토 벼루, 황용동 절터에서 나온 나는 듯한 사자와 짐승 얼굴 무늬의 꾸미개, 경주 소현리 돌방무덤에서 나온 십이지상을 소개한다. 3부 '다르게 보니, 새롭다'는 늘 보던 문화유산도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평범한 바둑돌에서 살펴보는 신라의 바둑 문화, 무늬 속에 숨은 매듭을 찾아보는 고대 직물, 배례석이란 통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향로석, 일상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나무 빗, 고된 작업의 흔적인 청동기시대 석기, 내면을 파헤친 조선 전기 목조관음보살상의 이야기를 담았다.

## 소소했기에 소중한

수장고에서 한 번도 전시실로 나와본 적이 없고, 전시되어 있었으나 관심에서 비켜나 있었던 문화유산을 다루다 보니, 화려함은 떨어진다. 작고, 깨지고, 대수롭지 않은 전시품이라서 소소하다. 그러나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가 있고 나와 교감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에 소중하다. 수장고 속 소소한 문화유산을 끄집어내며 인생을 생각하게 된다. 모두가 특별하고 화려한 인생을 꿈꾸지만 삶이 늘 그렇지는 않다. 많은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전시실 화려한 전시품 뒤에 수장고에 남겨진 소소한 문화유산처럼 말이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평범함을 자세히 혹은 다르게 볼 때 발견되는 특별함일 것이다. 모든 특별함은 평범함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를 관람한 사람들이 평범함에서 특별함을, 소소한 것에서 소중함을 발견하길 기대해 본다.

글. 이재현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2024년 열두 큐레이터의 전시 프로젝트 '소소하고 소중한'>



# 국립박물관과 함께한 2024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 아카데미’ 워크숍

- 2025년 국립박물관 뮤지엄 아카데미 확대 운영 계획 공유 -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의 직무 전문성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 교육훈련 과정인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 아카데미’(이하 ‘뮤지엄 아카데미’)를 설계·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6일 국·공립박물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5 뮤지엄 아카데미 확대 운영 및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뮤지엄 아카데미, 전문가들이 기다려 온 전문 교육

지난 2024년 처음 문을 연 ‘뮤지엄 아카데미’는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을 다루는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 역량을 강화하고 박물관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인력 교육훈련이다.

2024년에는 관련 전공자,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위한 일반 과정으로 온라인 강좌 20종, 매뉴얼 영상 45종, 영상 자료 6종 등 71종의 자료를 이러닝 플랫폼 ‘뮤지엄 아카데미(MUA)’(<https://academy.museum.go.kr>)를 통해 제공하였으며, 전국 61개 국립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인력을 대상으로 기초, 심화, 기획 과정 등 경력 단계별 특화 과정을 개설하였다. 이 교육은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7개 부처 37개 국립박물관 재직자 191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2025년에는 지난해 교육 운영 결과



와 교육생, 강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과 과정을 조정하고 교육 대상을 전국 국립박물관과 공립박물관 재직 학예인력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박물관 관계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6일 ‘뮤지엄 아카데미’ 워크숍을 개최하여 ‘뮤지엄 아카데미’의 교육 과정과 내용을 소개하고 국립박물관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현장 실무 중심, 발전 방향 제시한 2024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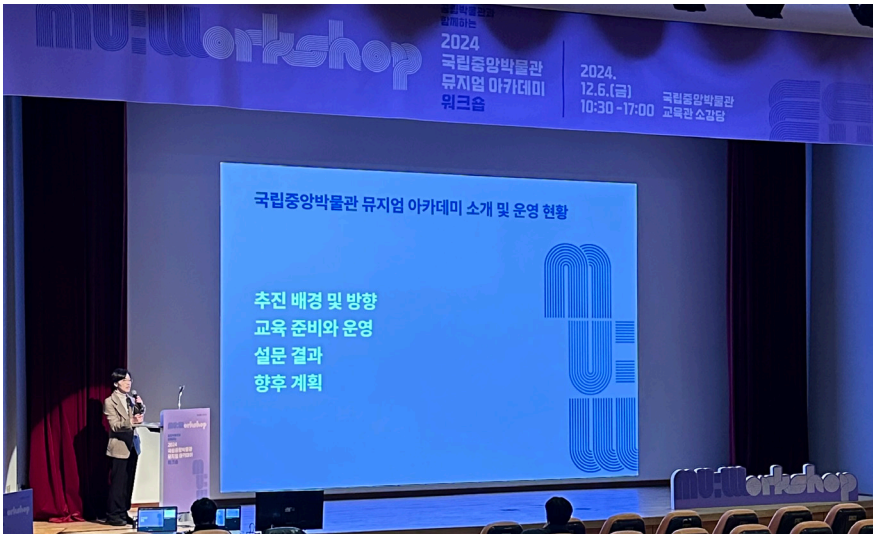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은 총 6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하였다. 2024년 ‘뮤지엄 아카데미’의 운영과 교과 내용, 국보순회전과 보존과학 분야 등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박물관 협력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박물관 교육 관련 전문가 강연을 마련하여 지역 기반 박물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먼저 올해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담당한 윤지연 학예연구사(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가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 아카데미 소개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2024년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 운영했던 뮤지엄 아카데미의 추진 배경과 방향을 설명하고 실습 중심의 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과 운영 내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설문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뮤지엄 아카데미 개선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박물관의 협력사업’을 주제로 ‘국보순회전과 국·공립박물관 협력 방안’에 대하여 황은순 학예연구관(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이 올해 진행한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박물관의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 순회전 개최 과정과 국립박물관과의 협력 내용을 공유하고 2025년에 이어질 국보순회전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리고 ‘국립박물관 소장품 보존 현황 조사’의 내용과 의미’라는 주제로 허일권 학예연구사(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가 보존과학 분야에서 국립박물관과 국립박물관이 각각의 소장품 관리 목표와 역할 내에서 지원·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현장 밀착형 실습 교육 운영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전시품 설치 연출과 매뉴얼 영상 등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라는 주제로 김현희 과장(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이 강의 자료와 영상 제작, 재료 및 도구, 실습 공간 활용, 강의 준비 과정과 내용을 소개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시품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연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 실습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소장품 다루기와 포장’을 주제로 김세원 학예연구관(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이 현장 밀착형 실습 교육을 개발하게 된 배경과 주제 및 대상품 선정 과정, 교육 준비와 운영 내용을 소개하고 실습 교육 운영의 의의와 향후 보완점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 구성의 변화와 박물관 교육’에 대해 강선주 교수(경인교육대학교)가 지역사회의 큰 변화 중 하나인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박물관 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발표하였다. 박물관의 공공성과 역할, 인구 변화 관점에서 박물관이 주목해야 할 교육 참여자, 한국적 맥락의 복합주의 등을 제시하여 박물관 교육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4 ‘뮤지엄 아카데미’ 워크숍 현장

## 2025 확대 운영으로 지속적 역량 강화, 상호 협력에 기여할 것

국립박물관 관계자들과 함께한 이번 워크숍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박물관의 협력과 지원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뮤지엄 아카데미’의 목적과 방향성을 알리고 앞으로의 교육 과정 설계·운영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워크숍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에는 경력 단계별 특화 과정을 2회(‘24년)에서 4회(‘25년 3월, 5월, 7월, 9월 예정)로 확대하고 세부 교과 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첫걸음을 뗀 ‘뮤지엄 아카데미’는 두 차례의 성공적인 교육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박물관·미술관별 운영 환경을 고려한 기획과 운영 단계별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뮤지엄 아카데미’가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지속 성장해 나감으로써 국립중앙박물관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윤지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학예연구사





해반도도 海蟠桃圖  
조선 19세기 전반기  
비단에 색  
243.5×247cm  
탁수3585

## 상서로운 2025년의 시작을 기원하며

Wishing You a Great Start to 2025

바다를 배경으로 학과 반도를 그린 해학반도도 海鶴蟠桃圖는  
장수를 염원하며仙境仙境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3천 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반도 蟠桃는 신선 세계의 복숭아로,  
이를 먹으면 불로장생不老長生한다고 합니다.  
원래 마주보는 네 폭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반도도 海蟠桃圖는  
궁중 회화의 큰 규모와 높은 채색 수준을 과시하는 작품입니다.  
2025년 을사년 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 한해 福되고 길吉한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20** 2005  
2025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20주년

## 새로운 시대의 창: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20년을 돌아보다

이건무 제8대 국립중앙박물관장 인터뷰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국립박물관 개관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시대의 문을 연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오늘날 당연한 일상처럼 보이는 박물관의 풍경과 활동들 뒤에는 수많은 박물관인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 올해 『박물관신문』 편집팀에서는 이러한 전환점을 맞아 국립박물관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노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첫 걸음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20여년 전 용산 이전을 이끈 이건무 제8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만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마주 했던 국립박물관의 도전과 비전, 그리고 오늘날 박물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건무**  
제8대 국립중앙박물관장

**1972년**  
국립중앙박물관  
근무 시작

**1989~1993**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

**1993~1998**  
국립광주박물관장

**1998~2003**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2003~2006**  
국립중앙박물관장

**2008~2011**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장

2005년 10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 시대의 새 문을 열었다. 1945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하여 문을 연 이래 60주년이 되던 해였다. 반세기를 훌쩍 넘긴 국립박물관의 역사 속에서, 십 년에 한 번 꼴로 이사를 해야 했던 박물관인들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는 오랜 염원이었다. 10만여 점 소장품의 대규모 이사는 국립박물관 역사상 여섯 번째였다.

“안정적인 공간에서 전시도 하고 유물 보존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은 대단히 컸죠. 저보다 앞서 박물관에서 근무하신 선배님들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손으로 박물관다운 박물관, 만 년 가는 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부산 광복동으로 소장품을 임시 이전하면서도 전시를 이어갔던 국립박물관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직접 손으로 그린 포스터를 붙여 전시도 했던 국립박물관의 저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이

어졌고, 용산 시대의 개막은 모두의 손으로 이룩한 쾌거였다.

이건무 제8대 국립중앙박물관장(2003.3.~ 2006.8.)은 용산 이전의 중심에서 이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 그는 여섯 번의 이사는 단순한 이동이 아닌, 우리 문화의 정수를 응축하는 인고의 시간이었음을 강조했다.

“우리 박물관의 소장품이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소위 일선동조론적 관점에서 발굴된 유물도 적지 않았고, 시대적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수 유적을 발굴하고 유물을 분류하며 연구를 이어갔죠. 고고학 분야만 해도 경기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 서울 암사동 신석기 유적, 부여 송국리 청동기 유적, 창원 다호리 원삼국시대 유적 등의 연구로 우리 선사 문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지석묘(支石墓) 조사연구와 부산 동삼동 신석기시대 패총 조사 역시 이 시기의 중요한 연구 성과입니다.”



1997년 착공 이후 8년 만에 완공된 국립중앙박물관 관은 연면적 138,156.25㎡(4만 1천여 평)로 당시 세계 여섯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했다. 시민들은 환호했고 개관 48일 만에 100만여 명이 박물관을 찾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시대는 대한민국 문화사에 새로운 정점을 찍은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질수록 박물관의 고민도 더욱 깊어졌다.

“박물관은 역사의 창窓이 되어야 합니다. 1970년대에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자는 문예 중흥이 강조되었고 2010년대에는 문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문화융성이 주요 화두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립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제대로 보여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용산 시대를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전시 공간을 선보였다.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역사실, 문화 다양성을 살펴보는 동양실, 기증자를 위한 기증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박물관

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진과 같은 재해로부터 유물을 지켜주는 면진대를 설치하였고 유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용 휴대 단말기(PDA)와 유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조명까지 도입하면서 전시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고 평가받았다.

“정치나 경제, 국제 정세 등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일수록 박물관은 메시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제를 유물로 풀어내 관람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박물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유물 한 점을 보더라도 관람객에게 상상력과 창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박물관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관람객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박물관의 전문 용어를 쉽게 풀어내고, 확실적인 정보 대신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를 즐길 수 있는 터전으로 탈바꿈했다.

2005년 10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이 서울 용산에서 새롭게 태어나던 날, 제8대 이진우 관장은 다채롭게 펼쳐진 개관 기념 행사를 이끌었다. 『박물관신문』(제411호)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를 표제로 특집 지면을 구성해 역사적 의미를 알렸다.



지난해 국립박물관은 한 해 천만 관람객 시대를 열었고, 세계 대표 박물관의 대열에 들어섰다. K-컬처로 상징되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그 중심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진우 전 관장은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과거를 돌아보는 ‘정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광복 이후 80년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숨을 고르고 성찰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전시, 교육, 소장품 관리, 홍보 등 박물관의 여러 정책을 점검해야죠. 포용과 배려, 진정성과 정체성, 신뢰와 화합, 상생과 공존, 예의와 염치 등 우리 문화의 본질인 지성적이고 양심적인 선비정신을 박물관의 정책 전반에 녹여내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늘려가야 합니다. 사회적 단절과 갈등이 커져가는 이 시대에 박물관은 반드시 온기를 전해주는 곳이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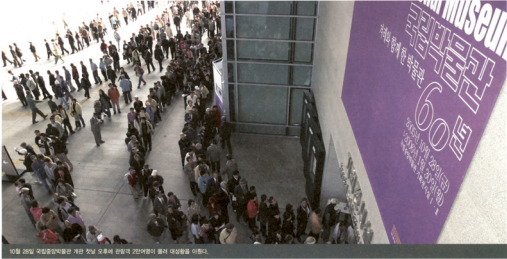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한 이래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용산은 과거 100여 년 동안 외국의 군대가 번갈아 주둔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박물관인들의 손에서 이곳의 역사는 희망으로 새롭게 쓰이고 있다.

“국립박물관의 미래를 열어가면서 박물관인들이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유산들과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잖아요. 예부터 박물관 사람들은 공경하고 강직합니다. 저는 후배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러운 박물관 사람임을 항상 잊지 마세요.”

20년의 용산 시대를 넘어, 국립중앙박물관은 미래를 향하는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고 있다.

글. 편집팀

2 2005년 11월 12일 NO.411



**국립중앙박물관 열리던 날** 45년간 공백과 함께 사막한 국립박물관이 용산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4 2005년 11월 12일 NO.411





# 추석 명절 페스티벌을 여는 미국 박물관 보셨나요?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의 다채롭고 창의적인 한국 문화유산 프로그램



2023년 10월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은 첫 추석 가족 페스티벌(Chuseok Family Festival)을 개최하였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한국식 추수감사절’이라고 일컫는 추석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워싱턴 DC 한국문화원과 협업하여 개최한 이 행사는 가족 및 청년세대 포함 5천여 명이 방문하며 박물관에서 주최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문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었다. 방문객들은 예술, 음식, 공연 및 한국계 미국인 예술가, 요리사, 작가 등과 함께 하는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와 유산을 기념하기 위해 박물관에 모였다. 이러한 성공에서 나아가 2024년도 추석 페스티벌은 7천 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워싱턴 DC에서, 국제적으로는 서울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과 파트너십을 확대하였다. 페스티벌의 영향력과 국립아시아예술

박물관의 한국 예술문화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3년 9월 참가했던 국립중앙박물관 주최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을 이야기 해야 한다.

2023년도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은 나의 역할 뿐 아니라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프로그램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었다. 내가 박물관의 공공 프로그램 부장으로 약 9개월째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우리는 갓 마무리된 2주 간의 페스티벌을 포함하여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연중행사에 매진하며 첫 추석 가족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펠로우십을 통해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는데, 한국계 미국 입양인으로서 10일 간 한국 박물관, 예술, 문화에 몰입한 경험은 매우 뜻깊었다.

펠로우십은 서울 전역에 위치한 기관과 교류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등으로 탄탄하게 구성되었다. 이 같은 일정 덕분에 동료들과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더욱 깊이 있는 협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우리는 현대부터 고고학에 이르는 다양한 소장품과 전시를 관람하며 한국 박물관 사업을 개괄적으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은 국립경주박물관과 인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방문한 일정이었다. 우리가 고고학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귀중한 유물을 발굴하고 신라 역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학자들을 만나 크게 감동했다.

서울에서는 아름지기와 국립민속박물관 방문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두 기관 모두 전통을 보존하고 나눈다는 미션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프로그램 목표와도 통하는 부분이었다. 이전에도 아름지기와 그 자매기관인 온지움과 비대면으로 협업하여 그들의 소장품인 현대 차례상 전시를 기획한 적이 있었다. 펠로우십에 참가하면서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과 전시를 보게 되니, 음식과 건축적 전통에 대한 향후 연계 아이디어를 더 떠올릴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국립민속박물관 담당자 면담에서는 당시 곧 개최될 예정이었던 추석 페스티벌에 대해 논의하고 더욱 심도 깊은 협업 기회를 살펴보았다. 2024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교육사가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추석 가족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7천여 명이라는 기록적 규모의 참가자들이 즐겼던 전통공예 활동을 이끌었다.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을 통해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2025년 말 고 이진희 삼성 회장의 기증품 가운데 핵심적인 유물 및 작품을 다루는 주요 대여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전시는 국립아시아 예술박물관의 공공 프로그램에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며, 미국 관람객에게 문화적으로 중요한 많은 한국유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한국 공공 프로그램의 비전은 커뮤니티 도입, 문화적 기념, 그리고 교육을 위한 의미미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은 수많은 협력과 교류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로써 우리 박물관은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추석 가족 페스티벌 이외에도 한국 영화제나 한국 및 한국계 미국인 예술가나 장인과 함께하는 체험형 워크숍 등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예시로는 예술가 카렌 안(Karen Ahn) 씨와 함께 한 매듭 워크숍, 정한수 갓길 전승교육사와 함께 한 장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문학, 패션, 음식 등 현대적인 주제에 관해 전통과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패널 토론 및 워크숍을 마련하여, 창의적인 한국계 미국인 전문가들을 조명하고 관심 있는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한국문화를 기념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우리 방문객을 위한 의미미한 학습 경험을 창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업과 창조적인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은 한국예술과 유산의 풍부한 전통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글. 니콜 다우드 Nicole Dowd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공공 프로그램 부장  
Head of Public Programs,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Asian Ar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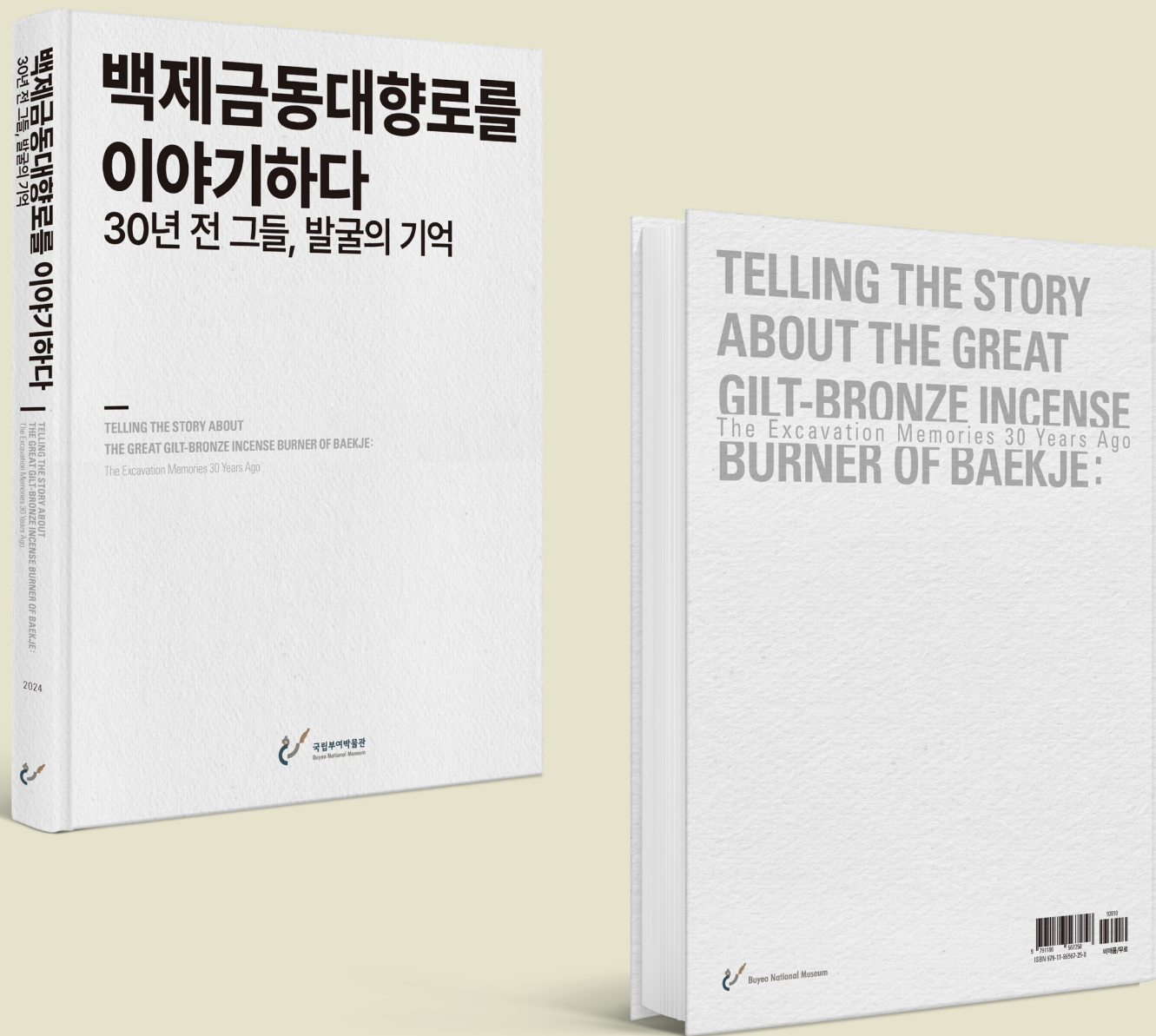
**필자 소개**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전체의 공공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을 감독하고 있다. 이전에는 워싱턴 DC 애플 사의 문화 프로그램 부장으로 근무하며 공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Today at Apple Creative Studios' 청소년 파일럿 프로그램을 담당하였다. 지난 10년 간 워싱턴 DC 소재 할시온과 해밀턴에서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하거나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현재 워싱턴 DC 7구 역사 지구에서 예술가 레지던시 및 지역사회 정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단체 '니컬슨 프로젝트(Nicholson Project)'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2023년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에 참가한 이래 국립중앙박물관과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박물관신문』의 'K-뮤지엄'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살아 숨 쉬는 한국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시간을 품은 너를 처음 마주한 순간

-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금동대향로를 이야기하다 - 30년 전 그들, 발굴의 기억」 편집자의 변 -



국립부여박물관은 1993년 12월에 이뤄졌던 백제금동대향로의 발굴을 기록한 자료집 『백제금동대향로를 이야기하다, 30년 전 그들, 발굴의 기억』을 2024년 12월에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2023년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12월 12일에 개최했던 주요 발굴조사단원들 좌담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향로 발굴당시 조사단원들의 증언으로 백제의 절터 부여 능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의 발굴 과정과 그 전후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백제 공예의 정수로 평가받는 금동대향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그 문화적 중요성을 조명했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국립부여박물관 누리집의 “소장자료-발간도서” 메뉴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전공은 서양 미술사학입니다. 그런 제가 이 자료집의 편집을 맡았을 때, 막연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거짓말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책은 발굴조사단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제금동대향로를 발굴한 조사단원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또한 간결하게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먼저 이 향로와 친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향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역사적 순간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려면, 먼저 향로와의 깊은 교감을 통해 그 내면을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제금동대향로는 우리나라의 국보입니다. 30년 전, 주차장 부지에서 발견된 이래 백제의 예술적 위상과 종교적 상징성을 온전히 담고 있는 유물로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백제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잘 알려진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향로가 단순한 유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속에 담긴 백제의 예술적 가치와 상징성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제가 자료집을 준비하며 처음 떠올린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국립부여박물관 제2전시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향로를 직접 보고, 그 안에 담긴 다층적인 의미를 마주했습니다. 향로에 담긴 상징과 사상은 여러 겹으로 얹혀 있어 처음에는 그 복잡함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복잡함 덕분에 이 향로는 더욱더 매력적이고 심오한 유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이 향로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다면적인 매력 덕분에 그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향로의 디자인 속에는 여러 사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연꽃 몸체에는 불교 문화의 영향을, 뚜껑의 배경이 되는 산봉우리는 도교 사상을 암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향로가 제작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향로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균형이 잘 맞아 보이지만, 뚜껑, 몸체와 받침대에서 완벽하지 않은 조화가 감지됩니다. 그러나 이 불안정성은 오히려 향로에 역동성을 부여하여 백제 예술의 유연한 미학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발굴조사단원들도 이 향로의 미학적 가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작품이 백제 예술의 자유롭고도 유연한 미학을 구현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자료집을 준비하며 봤던 영상 속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속에서 느꼈던 묘한 감정이 바로 그들이 말한 ‘백제 예술의 자유로움’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 그리고 카메라의 발명이 회화의 기준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카메라가 현실을 충실히 재현할 수 있게 되자, 프랑스 화가들은 고전적인 묘사를 추구하는 대신 순간적인 빛과 색채, 그리고 사물의 ‘인상’을 포착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예술 사조를 탄생시켰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밀한 묘사가 아니라, 찰나의 느낌과 색채의 조화를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향로를 바라보며 자연스레 19세기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들이 떠올랐습니다. 백제인들에게도 ‘완벽함’은 예술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미적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접근했고, 이러한 접근이 예술적 가치를 드러낸 것은 아닐까요? 비록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을 지라도, 진정성을 담아낸 미학 덕분에 향로는 그 자체로 예술적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19세기 인상주의 화가들이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열었던 것처럼, 백제인들은 1,200년 앞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예술 세계를 열었던 셈입니다.

이 자료집을 접하는 독자 여러분 각자는 저마다의 관점과 관심사로 백제금동대향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미술사를 전공한 제가 향로의 도상과 조형미에 주목할 것처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향로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백제의 예술성과 그 속에 담긴 사상,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발굴조사단원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향로를 통해 각자의 마음속에서 백제의 예술과 역사를 새롭게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글. 하혜미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



## 전국 누빈 국보급 문화유산, 2025년 다시 만나요!

2024 <국보순회전: 모두의 걸으로> 성료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국립박물관, 12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만든 <국보순회전: 모두의 걸으로>가 지난 2024년 6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여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국보순회전: 모두의 걸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불균형이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현실 속에서 균등한 문화 누림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2024년 4월 25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농경 문청동기, 화려한 신라금관, 갓맑은 하늘빛의 고려청자, 순백의 달항아리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 전시 6종이 전국 곳곳을 누볐다. 6개의 전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우리 문화'라는 슬로건 아래, 경남 합천박물관, 충남 보령석탄박물관, 경북 상주박물관, 전남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전북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충남 당진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충북 증평민속체험박물관, 강원 양구백자박물관, 전북 장수역사전시관, 경북 고령 대가야박물관, 경남 함안박물관, 전남 해남공룡박물관 등 12개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총 33만여 명이 관람하였다.

<국보순회전: 모두의 걸으로>는 국립박물관과 전국 12개 개최지의 60여 명에 이르는 학예직과 관계자가 함께 고민하며 만든 전시로 단순한 전시의 개념을 넘어 연계 교육과 공연도 함께 진행하는 지역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국립박물관과 지역 문화기관이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며 발전적 역할 모델이 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합천, 상주, 남원, 장수, 양구 등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은 개관 이래 가장 주목받는 전시로 기록되기도 했다.

<국보순회전: 모두의 걸으로>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지역의 요구와 균등한 문화 누림의 기회 제공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2025년 <국보순회전> 2탄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 2025년 <국보순회전>

올해 상·하반기 백제인의 이상향을 담은 산수무늬벽돌, 삼국시대 귀걸이 중 최고의 명품으로 꼽히는 경주 보문동 합장본 출토 금귀걸이, 무심한 듯하면서도 자유분방한 매력의 분청사기, 품위와 권위를 담은 조선 후기 왕실의 청화백자 등으로 구성된 4종의 전시가 각 2회씩 총 8개 기관을 찾아갈 예정이다.

**상반기(5~7월)** 경북 봉화 청량산박물관(백제 문양전), 경북 의성 조문국박물관(신라 황금장신구), 전남 고흥 분청문화박물관(분청사기), 충남 논산 백제군사박물관(청화백자)

**하반기(9~11월)** 전북 진안역사박물관(백제 문양전), 강원 삼척시립박물관(신라 황금장신구), 경남 함양박물관(분청사기), 전북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청화백자)

## 경주 동궁과 월지 출토 조선백자에서 <용왕> 묵서 첫 확인

국립경주박물관 ‘월지 프로젝트’



이 적힌 묵서<sup>墨書</sup>를 처음으로 확인하고 통일신라 이후 월지의 역사적 성격 변화를 밝히는 새로운 자료를 공개했다.

동궁과 월지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8,000여 점의 조선 자기편 가운데 이번에 묵서가 확인된 것은 130여 점이다. 대체로 16세기에 제작된 백자의 굽 안에 묵서를 남겼으며 가마에서 포개어 구워야 하므로 굽 부분에 유약을 시유하지 않은 점을 활용해 먹으로 글씨를 썼다. 묵서의 내용은 용왕<sup>龍王</sup>, 기계요<sup>紀溪腰</sup>, 기궤<sup>紀</sup>, 개석<sup>介石</sup>, 십<sup>十</sup> 등 다양하다.

여러 묵서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용왕 명 묵서이다. 학계에서는 월지에서 출토된 신심용왕<sup>辛審龍王</sup>명 토기가 용왕과 관련된 제기<sup>祭器</sup>이고 『삼국사기』에 수록된 월지를 관장한 동궁관<sup>東宮官</sup>의 예하에 용왕전<sup>龍王典</sup>이라는 관부가 있었다는 기록 등을 근거로 월지에서 용왕 제사가 거행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왕 명을 비롯해 이번에 확인된 묵서들은 조선 전기 경주 지역의 생활상은 물론, 월지가 갖는 의미 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경주 지역에서 조선 전기의 한글 관련 자료가 보고된 적이 드물다는 점에서 월지에서 출토된 제주<sup>濟州</sup>, 산디 등의 한글 묵서 명 백자는 16세기 경주 지역의 한글문화를 연구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행사 및 특별전

사진전, 옥외전시장 조성 등 다채로운 이벤트 준비



국립대구박물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특별전 <향의 문화사: 염원에서 취향으로>를 개최하고 기념 자료집 『1994~2024 국립대구박물관 30년』을 발간했다. 지난 1994년 12월 7일 개관한 국립대구박물관은 매년 특별전시, 문화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지역 대표 국립예술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30주년 기념행사는 사진전부터 옥외

전시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었는데, 먼저 오는 2월 2일까지 1층 휴<sup>休</sup>룸에서 <추억, 박물관 30년 그 어느 날>이라는 제목의 사진전이 열린다. 또한 박물관 뒤 산책로 주변으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석조물을 활용해 옥외전시장을 조성했으며 <석인상>, <동자석>, <문인석> 등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주제는 ‘돌 동물과 함께’, ‘돌 사람의 길’, ‘모임의 언덕’ 등으로 구성되었다. 올봄에는 꽃과 나무를 심어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새 단장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 ‘참방참방 획획’



국립전주박물관이 지난해 12월 5일 문방사우를 주제로 어린이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하였다. 어린이박물관 ‘참방참방 획획’은 어린이 관람객이 문방사우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벼루·붓·먹·종이 놀이터와 36개월 미만 영유아 전용 공간인 연적 놀이터로, 이번 개편은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이 서예 문화를 친숙하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시는 문방사우에 대해 놀며 알아가는 아날로그 체험과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는 디지털 체험으로 구성했다. 문방사우의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며 무형유산 장인이 제작한 문방사우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아날로그 체험 외에도 반응형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 ‘참방참방 놀이터’, 36개월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영유아 전용 공간 ‘퐁드랑 퐁드랑 연적 놀이터’가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는 서예 문화를 주요 콘텐츠로 소개하는 국립전주박물관의 특성에 맞추어 문방사우를 주제로 하였다. 또한,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주 관람층인 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영역별로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설계하였다. 어린이박물관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립진주박물관,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업무협약

지리산 문화유산 조명을 위한 활동 협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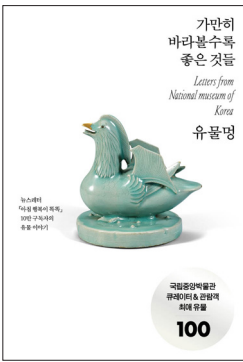


국립진주박물관은 지난해 12월,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지리산 국립공원경남사무소와 지리산 문화유산의 가치 조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 기관은 지리산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전문 의견을 공유하고 지리산 문화유산의 가치를 조명할 수 있는 조사·연구·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박물관 인사동정(2024.11.16.~12.15.)				
전입	2024-11-18	행정주사보 송은아	국립국악원	→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11-18	행정주사보 진성준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국립국악원
	2024-11-18	행정주사보 박순덕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 국립국악원
	2024-12-04	부이사관 박소정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육홍보과	→ 외교부 파견
전보	2024-12-02	행정주사 김동현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12-02	행정주사보 최윤지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12-02	행정주사보 박숙경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
	2024-12-02	행정주사보 정미경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	→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12-02	행정주사보 김미주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12-02	행정주사보 김정현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	→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
정규임용	2024-12-06	행정7급 채용후보자	이찬희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 행정주사보
	2024-12-06	행정7급 채용후보자	김동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행정주사보

##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 관람객의 최애 유물은?!

「유물명: 가만히 바라볼수록 좋은 것들」출간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장품 큐레이션 서비스 ‘아침 행복이 똑똑’의 글을 엮은 「유물명: 가만히 바라볼수록 좋은 것들」을 출간했다. 달항아리, 반가사유상, 금동대향로 등 10만여 명의 구독자에게 큰 호응과 관심을 받은 100가지 유물 이야기가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지면에 펼쳐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소장품 외에도 관람객이 발견한 작은 토우, 백자 명기, 목칠

가구 등 우리 문화재 특유의 여유와 익살, 소박함과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다채로운 소장품과 이야기도 담겼다. 유물 속에서 ‘똑똑’ 마음을 건드리는 나만의 최애를 찾아보자. 세종서적과 공동 기획한 「유물명: 가만히 바라볼수록 좋은 것들」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 뮤지컬 <판타지아> 시즌 3, 1년 만에 극장 용으로의 귀환!

모차르트, 푸치니, 베토벤 등 재미있는 클래식의 교과서



뮤지컬 <판타지아 시즌 3: 월드 오케스트라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라!>(이하 <판타지아> 시즌 3)가 1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으로 돌아왔다. <판타지아> 시즌 3은 오는 1월 18일부터 2월 23까지 극장 용에서 진행된다. 2015년 초연부터 겨울 콘텐츠로 자리를 잡은 <판타지아> 시리즈는 오페라와 클래식을 접목시킨 오페레타 뮤지컬이다. 이번 시즌에는 시즌 1과 2에서 사랑받았던 부니부니 탐험대와 시즌 2의 주인공인 서진이의 동생 서준이가 새롭게 등장한다. 서준이는 오케스트라 챔피언 대회에 도전하는 지휘자로 부니부니 탐험대와 함께 최고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만들어 가며 사랑과 우정, 도전과 성장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판타지아> 시즌 3 공연은 예스24, 인터파크, 네이버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전 상설전 어린이박물관

	1 JANUARY	2 FEBRUARY	3 MARCH	4 APRIL	5 MAY
중앙	+ - ÷ ×(알기 쉽고 잇기), 문화유산 속 마음   2024.11.19.~				
	고대 그리스·로마실   2023.6.15.~2027.5.30.				
	〈달항아리를 만든 곳, 금사리〉   2024.6.25.~2025.6.22.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2024.11.26.~2025.3.3.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2024.11.30.~2025.3.3.				
경주	〈소소하고 소중한〉   2024.12.10.~2025.3.9.				
광주	〈영월한 여정,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   2024.11.12.~2025.3.10.				
전주	참방참방 기획전   2024.12.5.~				
	〈서예, 일상에서 예술로〉   2024.6.27.~2025.2.28.				
	〈서울구경 가자 سرا, 임을따라 갈까 부다 - 조선의 베스트셀러 한양가와 춘향전〉   2024.10.1.~2025.1.5.				
대구	고 이견희 회장 기증 〈대구경북의 국보와 보물〉   2024.7.9.~2025.6.29.				
	고 이견희 회장 기증 석조물   2024.12.6.~				
	〈향의 문화사: 염원에서 취향으로〉   2024.12.7.~2025.3.3.				
부여	옥외전시장 재개장   2024.08.26.~				
	테마전 〈자비의 금빛 미소, 두 보살의 만남〉   2024.12.5.~2025.1.9.				
공주	옥외 석조문화유산 정원 〈수호의 정원〉   2024.9.10.~				
	국가귀속유산 미리보기 〈이목집중 문화유산〉   2024.11.23.~				
	국가귀속유산 미리보기 〈우리지역 문화유산 재발견〉   2024.11.23.~				
	〈상상의 동물사전-백제의 용〉   2024.9.10.~2025.2.9.				
진주	〈사기장沙器匠, 흙을 빚어 삶을 아름답게〉   2024.10.1.~2025.2.23.				
청주	국립청주박물관 제31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   2024.12.24.~2025.3.9.				
김해	〈히타이트〉   2024.10.8.~2025.2.2.				
제주	〈동자상, 조각 정원〉   2022.11.11.~				
춘천	〈이상향으로의 초대-금강산과 관동팔경〉   2023.12.5.~				
나주	〈빛, 고대 거울의 속삭임〉   2024.10.8.~2025.2.9.				
익산	〈미륵사지 출토 치미 -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   2024.10.22.~2025.3.3.				

	교육프로그램(제목)	일시	장소
중앙	〈공간 오감〉 여기, 우리, 반가사유상	1.7.(화)~1.25.(토) 매주 화·목·토, 10:00~11:30 / 14:00~15:30	공간 오감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어린이를 위한 감상가이드	2024.11.26.(화)~2025.3.3.(일)	특별전시실
경주	1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1.22.(수)	특별전시관
광주	특별전 연계 교육 '토우야 반가워!'	1.7.(화), 1.9.(목), 1.11.(토), 1.14.(화), 1.16.(목), 1.18.(토), 1.21.(화), 1.23.(목)	교육관 체험학습실, 기획전시실
	무럭무럭! 문화유산 더하기+ '내 곁의 토우'	상시	어린이박물관
전주	전북에 있는 우리마을 보물찾기	매주 토	본관
	참방참방 플레이(play)	평일(1.8.~2.18.) 15:00~17:00	어린이박물관 3층
	상자가 열리면	상시	어린이박물관 2층
대구	[관람객] 제24회 국립대구박물관 어린이 그리기 잔치 입상작 전시	2024.10.1.(화)~2025.3.2.(일)	해솔관 복도
	[특별전시 연계 교육] 향 만들기	1.3.(금), 1.10.(금) 14:00~15:30	문화사랑방
	[특별전시 연계 특강] 세기의 발굴, 백제금동대향로	1.8.(수) 14:00~16:00	강당
	[특별전시 연계 해설] 큐레이터와의 대화	1.15.(수) 14:00~15:00	기획전시실
	[특별전시 연계 교육] 소망을 담은 향로	1.4.(토)~1.25.(토) 매주 토 10:00~11:30	문화사랑방
부여	[관람객] 문화유산 그림단추	1.4.(토)~1.25.(토) 매주 토 14:00~16:00	해솔관 로비
	온라인으로 즐기는 '도전! 백제금동대향로 박사'	1.1.(수)~1.31.(금)	온라인
	온(ON) 가족 신신놀이	1.24.(금)~1.27.(월) 기간 중 자율선택 2시간	온라인
	[겨울방학]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백제금동대향로	1월 중 예약제	전시실, 교육실
	향로 속 친구와 인사해요!	1월 중 예약제	교육실
공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1월 중 예약제	교육실
	한국의 색·향·미	1월 중 예약제	교육실
	희망박물관 더불어 좋은 세상	1월 중 예약제	교육실
	유 퀴즈? 관찰하GO 생각하GO	1.2.(목)~12.31.(수)	상설전시실
	우리 가족 슬기로운 공작생활-백제 용 사전	1.11.(토)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진주	우리 가족 슬기로운 공작생활-옹무늬 칼	1.18.(토)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우리 가족 슬기로운 공작생활-옹이 사는 신비로운 세상	1.25.(토)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큐레이터와의 대화 "상상의 동물사전 백제의 용"	1.22.(수)	기획전시실
청주	특별전 연계 '큐레이터와의 대화'	1.25.(토) 14:00	기획전시실
	특별전 연계 '흙으로 만든 세상'	1월 매주 수·금 14:00~16:00	교육실, 기획전시실
	뽕잔이와 함께 하는 박물관 탐험	1월 매주 화·목 10:30~11:10	교육실, 역사문화홀
	조선 수군 체험	1월 매주 화~금 10:00~17:00	어린이 임진왜란 체험실
충주	석신로드(AR콘텐츠)	상시	야외정원
춘천	관람객 누구나, 체험공간 〈문화놀이터〉	상시	문화놀이터
나주	[가족]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1월 매주 토 10:30, 14:00, 16:00	어린이박물관
	[가족] 종이풍선에 담긴 문화유산	1월 매주 일 10:30, 14:00, 16:00	어린이박물관
익산	제3기 익산박물관대학	1.8.(수), 1.15.(수), 1.22.(수) 14:00~16:00	강당
	도솔이와 함께 떠나는 미륵사 시간탐험	1.4.(토)~1.25.(토) 매주 토	어린이박물관
	박물관 속 고도 익산 여행	1.4.(토)~1.26.(일) 매주 토·일 및 공휴일	상설전시실
	특별전 〈미륵사지 출토 치미〉 연계 프로그램 '와박사의 치미를 찾아라'	1.4.(토)~1.26.(일) 매주 토·일 및 공휴일	기획전시실



고려 사람들의 상상력을 가득!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비색 담은 몯즈

상형청자는 식물이나 동물의 모양으로 만든 청자다. 고려 상형청자는 아름다운 비색과 입체적이고 섬세한 모양이 특징인데, 이번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에서는 고려 상형청자의 정수를 볼 수 있다. 전시에서 느낀 상형청자의 매력을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전시 관련 몯즈를 준비했다.



- 1 **청자 주자접시세트**

참외, 죽순, 석류의 형태를 본떠 만든 상형청자 접시 세트.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상형청자의 모습을 접시로 재현했다. 입체적으로 표현된 다양한 모양에 푸른 유약이 더해져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크기: 128×135mm  
소재: 청자  
판매가: 59,000원
- 2 **청자 꽃사발 막걸리 잔세트**

고려시대의 '청자 꽃모양 사발'을 활용하여 제작한 막걸리 잔세트다. 청자는 뛰어난 비색 덕분에 풍류를 즐기는 찻잔과 술병으로 많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청자 꽃사발 막걸리 잔과 함께 고려 사람들의 삶과 한 모금의 맛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크기: 58×93mm, 135ml  
소재: 청자  
판매가: 39,000원
- 3 **청자 3색 볼펜(2종)**

고려 상형청자인 '오리모양 연적'과 '참외모란주자'를 활용한 3색 볼펜이다. 아기가기하게 구현된 상형청자의 모습이 매력 포인트. 일상 속에서 귀여운 상형청자와 함께해 보자.

크기: 15×145mm  
잉크색상: 검정, 빨강, 형광노랑  
판매가: 각 9,000원
- 4 **청자 파우치(2종)**

독특하고 예쁜 파우치를 찾고 있다면? 청자 파우치 2종을 추천한다. 상형청자를 그대로 재현한 외형과 폭신한 촉감, 그리고 디테일한 표현까지 독특한 매력을 뽐낸다.

크기: 185×192mm  
소재: (겉감) 폴리에스터 84.0%, 나일론 15.8%  
(안감) 나일론 100%  
판매가: 29,000원
- 5 **고려 상형청자 아크릴 데스크 시계(2종)**

고려 상형청자의 다채롭고 재밌는 외형과 아름다운 청자색을 담은 탁상용 시계. 상형청자를 귀여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해 일상에 즐거움을 더했다.

크기: 120×150×3mm  
소재: 아크릴, 시계  
판매가: 각 32,000원



구매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 또는  
온라인 뮤지엄숍  
www.muds.or.kr

2025년 1월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새해

805회

18:00~18:30

19:00~19:30

선사·고대관

특별전시실2

선사·고대관

서화관

말갯춤으로 보는 가야문화  
가야실(107호)  
고고역사부 노형신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5)  
특별전시실2(121호)  
미술부 임진아

부여 외리 문양전  
백제실(106호)  
유물관리부 조용환

강세황의 자화상  
서화실(202~4호)  
미술부 이혜경

806회

18:00~18:30

19:00~19:30

기증관

특별전시실2

특별전시실1

선사·고대관

한국의 기와  
기증Ⅲ실(206호)  
디지털박물관과 김진경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6)  
특별전시실2(121호)  
미술부 서유리

특별전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  
구스타프 클림트에서부터  
에곤 실레까지>(3)  
특별전시실1  
유물관리부 이진민

가야와 왜의 교류  
가야실(107호)  
유물관리부 이동관

807회

18:00~18:30

19:00~19:30

중·근세관

특별전시실2

서화관

조각·공예관

조선의 시한쪽탄 비격진천뢰  
조선Ⅱ실 (118호)  
보존과학부 허일권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7)  
특별전시실2(121호)  
미술부 서유리

빛의 예술 나전칠기  
목칠공예실(204호)  
미술부 황지현

불교 범음구  
금속공예실(302호)  
유물관리부 정다희

1.29.

설 연휴





#### 표지 이야기

상형청자는 고려시대 도자공예의 예술성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대상의 형상을 본뜬 빼어난 조형성과 아름다운 비색으로

고려시대 공예의 높은 기술적 성취와 독자적 미감을 보여주기에, 한국문화의 정수라고도 불립니다.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는 상형청자의 대표작과 발굴품 등

중요 자료를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은 의미 깊은 특별전입니다. 상형청자에 담긴 고려 사람들의 세상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이기도 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 상형청자의 역사와 문화사적 맥락을 짚어보고

상형청자에 깃든 고려 사람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이 사랑한 자연과 동경한 이상향, 애정을 담아 바라보았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